



노동조합 설립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자랑스러운 노동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오늘 화성쪽 소식에 너무나 기쁜 마음에 잠이 들것 같습니다. 우리조합원들 모두 짱/짱/입니다.

사측은 우리들 손바닥에서 놓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왕 이기는거 TKO로 이기면 재밌잖아요? 한방 KO로 다운시켜 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다같이 함께하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밝은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투쟁!!!

함께합시다! 단결하면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이뤄졌습니다. 더~큰 꿈을 위해 투쟁! 한국쓰리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니,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투쟁!!!

하루하루 보내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투쟁심이 불타오르고 있음이 느껴지네요. 투쟁!!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한마음이 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끝까지 항팅!

우리 모두 단결하여 빼앗긴 우리 권리 되찾읍시다~투쟁~

물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물랐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물랐습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뜨거운 가슴을 끝까지. 모두 함께. 웃는 그 날까지. 어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나주! 화성! 우리 모두 하나되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조합이 2009년 5월에 설립되던 초창기에, 한국쓰리엠지회 사이트에 조합원들이 올려준 소중한 글귀들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자! 불의와 맞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유감없이 과시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신바람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노동조합 탄압하면서 노사문화 얘기하는가? 함께가는 길 64호 반박

[회사주장] 정상적인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협과 관련없는 현안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파업을 하는 것은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회사는 유감을 표합니다.

[조합입장] 조합은 교섭석상에서 단협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업역시 길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조속히 단협안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 일괄 수정안 제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안문제와 단협은 다른 문제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교섭이 진행 되어지고 있는 현재, 회사는 명분쌓기에 혈안이 되어 3월 1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또 다시 상벌위원회를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 임금협상이 끝나기 전에 일을 들먹거리며 화성에서는 이번달만 3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고소 고발을 취한 상태이다.

조합원들보다 더 심하게 폭언 및 폭행을 한 비조합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절차도 밟지 않은채, 조합원들에

게만 일방적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는 원칙을 들먹거리지만 원칙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위해서 이토록 조합탄압에 힘쓰고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이런 회사에 조합은 경의를 표한다.

[회사주장] 교섭은 교섭이고 현안문제는 별개입니다.

[조합입장] 이에 대하여 42차 교섭석상에서 나주 김희봉 사무장은 『교섭은 교섭이고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이다』 라고 회사 대표에게 분명히 밝혔다.

[회사주장] 회사는 현안 문제를 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섭석상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합입장] 이에 대하여 박근서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교섭석상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고 분명히 밝혔다.

습관성 폭력자행

지난 3월 15일 나주공장 부서장들이 대자보를 통해, 장갑수 파트장을 우리 조합에서 명예훼손했다고 터무니 없는 생트집을 잡았다.

지난 3월 12일에 우리 조합이 회사에 발송한 기정사실인 내용을 폄하하고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공문에 보낸 내용뿐만 아니라 장갑수 파트장의 만행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장 파트

장의 평소 말투는 주로 욕설로 채워졌다. 과거 LCD에서처럼, 부서원들에게 주먹질을 해댔다. 또한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습관처럼 이어왔다. 이에 대한 관련 증인들은 헤아릴 수 없다.

우리 조합의 소식지와 공개게시판은 명백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배포되며 그러하기에 조합 소식지에 우리 입장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단협 43차 나주교섭

3월 16일 오후 2시에 단체협약 나주교섭이 이어졌다.

당초 16일 교섭부터는 집중교섭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차후 교섭때로 연기됐다.

광전지부 권오산 부장은 “현안 문제들과 함께 조속히 타결하고 싶다. 회사가 성의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조합도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생산의 안정화를

위한다면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원용 본부장은 “파업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서로 손실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권오산 부장은 회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46조부터 50조까지 협의했고 차후 교섭부터는 진전된 교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쟁의기간에 대체인력?

화성공장 LCD부서에서는 지난주 토요일인 13일, 비조합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 설비를 가동하였다. 이날 투입된 비조합원 중에는 생산직 직원 뿐만 아니라 대리에서부터 차장 직급의 사무실 직원은 물론 현장 각부서 반장, 파트장, 계장 직급까지 거의 모든 비조합원들이 총동원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속 되어있는 부서 구별없이 마구잡이로 투입되어 가동하는 바람에 설비들의 셋팅이 변하고 작업종료 후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않아, 일요일 야간 첫 출근자들이 그 뒤 치닥거리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느라 애를 먹은 것은 당연하다. 지난 10일 조합설립 300일 기념 행사일에는 비조합원들이 LCD 포장실에서 여지껏 1인 작업이던 대형사이즈 제품의 포장을 3인 1조로 작업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3인1조로 작업하고 있던 그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혼자서 작업해온 노동자들의 고충을 느꼈는가?

또한 주말 대체인력으

로 투입되었던 직원들에게 묻고 싶다. 주말 근무가 얼마나 힘이 들었길래 작업 마무리도 안하고 퇴근했는가?

당신들은 단 몇 차례 노동과 특근 투입이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계속적인 작업인원 축소와 강압적인 주말 특근과 잔업이 당연히 되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비꼬는 말일 수 있겠으나 혹여나 이 틈을 타서 잔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무실 직원들의 주말 특근을 GB-project로 내놓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LCD에 또 다시 계약직 2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시켜 설비를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이며 노조 탄압행위인 것이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행위와 탄압 행위 등의 현안문제들을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조합의 쟁의행위를 놓고 조합의 억지라 주장한다면 파업은 불가피한 것이다.

거짓 선전 멈춰라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의 일자리를 같이 지킵시다. -중략-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의 내용은 2009년 10월 23일 마스크 박상훈 이사가 오형탁 부지회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같이 지켜가자, 언제든지 연락주라더니 정작 멀쩡히 일하던 경비원들을 해고 시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출근길에 웃으며 반겨주 시던 경비 아저씨들을 지금은 볼 수 없게됐다.

그 자리에는 험상궂은 용역 강패들이 대신하여 조합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는 현장에서 조업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하고자 현장을 방문한 조합 지도부에게 용역강패들이 달려들어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무력을 행사한 것은 압권중에 최고의 압권이었다.

이날 사건에 대해서 회사 게시판에는 조합간부가 난입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폭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월 2일, 용역강패들의 폭력앞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인 오형탁 부지회장은 예전부터 축구클럽 활동으로 인해 인대부상이 있었을 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입원하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오형탁 부지회장이 병원에서 수술한 부위는 인대 부분이 아니라 무릎 연골을 드러내는 큰 수술이었음을 회사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데도 인대 운운하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회사가 게시판에 내놓은 인쇄물에서는 용역강패들의 폭력장면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교묘한 캡처화면으로 조합간부가 용역들에게 위협하는 듯한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다.

회사의 주장에 맞다면 편집된 사진을 게시할 것이 아니라 증거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라.

계속해서 용역들을 앞세워 폭력을 휘두르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